

# 사설

## 중앙신도회에 바란다

조계종 중앙신도회가 지난 15일 드디어 창립되었다. 발족하는데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상무대 비리사건으로 조기현 전 신도회장이 구속되는 등 '전국신도회'의 조직과 기능이 사실상 마비됨으로써 개혁종단은 새로운 중앙신도회의 창립이 불가피하였다. 그러나 재가신도공동체의 결집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제 조계종은 중앙신도회 탄생으로 여법한 승가공동체를 이루게 됐다. 그동안 불교계 안팎에 널려있는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고 잘못된 관행과 폐습을 청산하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다. 교구 분장사의 신도회를 새롭게 조직하고, 직능·지역별 신도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일반의 사를 '하나라' 집결하는 작업은 자연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다.

둘째, 조직이 좀 더 활성화되고 대중화되어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정신을 살려서 교구 분사와 말사의 신도회를 활발히 동참할 수 있도록 청년, 학생 등 각계 각층에서 활동하고 불자들을 직능·지역별로 조직화하고 중앙신도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그야말로 명실상부한 각계각층의 재가불자를 대변하는 기구로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정권이나 이권에 개입하여 대중적인 기반을 상실했던 지난 날의 폐습이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건실한 조직을 유지하려면 수행과 교육이 필수적이다. 확고한 신앙심을 갖고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도록 활동 프로그램이 제시되어야 한다.

셋째, 지금 종단에서 펼쳐고 있는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에 적극 동참하길 바란다. 과거의 산중불교, 치마불교, 어흥불교와는 다르다. 1600여년이 넘도록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가 되어온 불교가 여러 가지 내적, 외적인 요인으로 제 구실을 못했던 과거를 깊이 참회하고 이 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위해 자기희생이 미치지 않는 운동이 바로 이 깨달음의 사회화운동이다. 서구사상에 바탕을 둔 물질문명의 붕괴와 불교의 연기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대안사회를 요구하고 있다. 인류에게 미래사회의 비전을 제시하고 이 땅의 역사와 사회 속에서 부처님의 정신이 구현되어 불국토가 건설될 수 있도록 자기비모살행을 실천해야 한다.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통해 불교의 생명력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 살아 숨쉬는 불교의 힘을 보여주어야 한다. 술, 바론, 대령, 뽕기, 역사바보세우기, 나라살리기, 우리민족 서로돕기 등의 운동에도 적극 동참하자. 고통받는 우리 이웃들의 눈물을 씻어주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갈등과 대립이 없도록 화합된 복지정토사회가 건설될 수 있도록 중앙신도회가 앞장서길 바란다.

# 열린마당

## 등국대 불교학부 축소위기

등국대 불교학부 입학 학생증 상당수가 전과(轉科)를 신청, 불교학부를 떠난다. 등국대의 상징이자 건학이념의 산실인 불교학부의 위상은 물론 자칫 존폐위기까지 느껴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학부제 실시에 따른 결과로 현 제도하에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자구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한 학교측의 입장과 해결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편집자 주>

## 석좌교수 초빙 등 불교학부 내실 강화

**박부권 (등국대 교무처장)**  
 불교학부의 많은 인원이 전과로 빠져나가는 데 대해 종립 등국대학교에서 우려의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현 학부제 제도에서 학생들의 선택을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다. 내부적으로는 불교학부의 기초도 필요하나 대학원으로 무거운 중심이 옮겨져야 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불교학부를 소홀히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학교측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석좌교수를 초빙하는 등 불교학부의 요구를 대체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불교학부가 얼마나 내부적으로 자생력을 갖고 학생들을 흡인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느냐에 있다고 본다. 제도 자체가 불교학부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면, 불교학부는 교수, 학생 할 것 없이 나름대로 능동적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

## 실용과목 늘려 자격증 취득·취업 연계

**김형중 (명성여고 교법사)**  
 종립 등국대학교가 교육부로부터 우수대학으로 평가를 받은 것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그러나 '학부제'의 실시로 불교학부가 인기가 떨어지고 우수인재를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이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학부제에 따른 불교학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불교학부를 경쟁력 있는 학과로 만들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을 대폭 개정하여 실용적인 불교학 과목을 많이 개설해야 한다. 불교 복지학·불교 아동학·불교 상담학·불교 사회학·불교 교육학 등의 과목을 이수하면 복지사·상담원·유아원교사·종교 교사 등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졸업 후 취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교·교계·종단에서 불교학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불교학부를 졸업하면 종신직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법사 또는 포교사로 풀수해야 한다. 일정기간 각 교구 분사를 중심으로 전법 활동을 하게 한 후 종단 또는 종립학교·불교인문 등에서 채용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각 분야의 불교 전문가를 활용하는 유능한 교수진(강사진)의 확보와 보다 많은 장학제도도 필요하다.



◇ 학부제 실시에 따른 불교학부 인원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대다수다. 사진은 등국대 캠퍼스

등국대 불교학부가 비인기학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학부제로 입학한 60명 정원의 불교학부 2학년 학생증 금년 신학기엔 전과(轉科)를 신청한 학생은 19명이다. 이중 14명이 전과를 최종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과(轉科)는 등국대가 지난해부터 학부 및 계열별로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실시한 제도로, 1년간의 학부과정을 거친 2

## 학부제 실시...종교관련 학부 진동

### 등국대 작년 60명 입학 14명 전과 확정 서강대·이화여대 종교학부도 심각

학부제 실시로 인해 종교학부도 심각한 위기에 처하고 있다. 서강대 신학과와 이화여대 기독교학과는 4명에 불과해 일부 인기가 떨어진 전공학과 선택이 물러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생회측이 반발하고 있는 또다른 부분은 올해부터 불교로, 1년간의 학부과정을 거친 2

로 줄이고 불교대학원의 정원을 두배 가까이 늘린 것. 이는 학문의 기초가 학부에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교육기본법에 어긋나는 학사행정이며, 종립학교가 어떻게 불교학부를 이대로 방치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 전공을 신청하는 학생을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과로 인해 많은 수의 학생이 빠져나갈 경우 편입학부는 가점교육학과(정원 30명중 전과 7명)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불교학부 학생회측은 "이대로 가다가는 불교학부가 존폐위기에 몰릴 수도 있다"며 학부제 운영에 대해 깊은 우려

한명우 기자

737-0691

## 현대만평



어허!

### 목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불도를 구하고자 함인데 청정해야 한다. 네가 세속의 더러움을 지내면 내가 르침 속에 들어온들 무슨 큰 이익이 있겠느냐?"

### 때묻은 옷을 빨자

3년뒤 그는 다시 부처님을 찾아왔다. "가르침대로 행하여 상하가 두루 기쁨을 입었사오니 이제 거두어 도를 배우게 하소서." 그는 사문이 되어 나한과를 얻었다.

### 봉선사 통신강원

통신강원 전문의 불교공부

- 스님을 위한 전문반
  - 사미과
  - 사교과
  - 사교과
  - 의전과
- 재가불자를 위한 교양반
  - 교리강좌
  - 교양역사
  - 경전강독
  - 교양불교사

문의처 (0346) 68-1957 (교무과)

경기도 남양주군 진접읍 부평리 255

봉선사 불교전문통신강원 원장 金月雲

# 자연의 도량속에 위치한 전통 재래식 황토 불 한증막과 황토 사우나

## 세속의 번뇌와 무명을 씻어내고 부처님을 만납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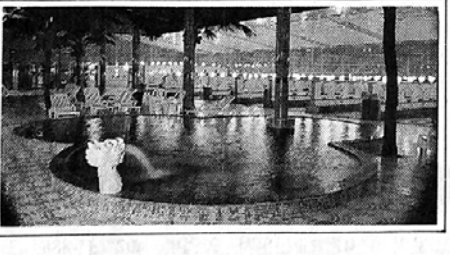
- 도피안사, 홍릉사, 채신사, 산정호수, 백운폭포, 베이스타운 등 각종 위락시설로 이어지는 서울근교의 자연생활
- 포천 관광 단지내에 위치한 「일동 사이판」은 국내 최대의 전통 재래식 황토 불 한증막과 황토사우나로 최고의 시설을 자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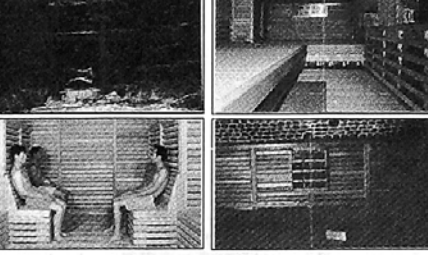
● 일동 사이판 전경



● 국내 최초 실내 썬텐



● 초대형 목장



● 불 한증막 및 황토, 고온, 한방사우나

### 찾아오시는 길



### 교통편

- 시외버스: 상봉터미널, 수유리시외버스터미널 일동직행버스 일동하차
- 자기운전: 43번국도-(포천-3.8교-성동삼거리 우회전 4km) 47번국도-(퇴계원-광릉입구-내리 일동-산정호수방면 4km)

### 신도불이

강원 철원지방에서 생산된 싱싱한 과일등으로 향토시장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 ※ 일동 사이판
- 국내 최고의 유황천
  - 국내 최대의 대형 목욕장
  - 불 한증막
  - 실내 썬텐시설
  - 황토, 고온, 한방사우나
  - 신선하고 격조높은 노천탕
  - 수중 안마탕
  - 초대형 냉방 및 주차시설 완비

### 일동 사이판

ILDONG SAIPAN

경기도 포천군 일동면 수입리 705번지  
TEL:(0357)536-2000